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185 - 210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 분석 : 부르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이재욱*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를 단순한 제도나 물리적 접근성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얽힌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르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분석틀로 삼고, 신길역 리프트 사고, 국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동권 네트워크는 복잡적이고 유동적인 구조이며, '번역'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권력관계와 정치성을 내포하며, 에이블리즘에 저항하는 투쟁의 장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동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제도 중심 분석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한다.

주제어 : 이동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비인간 행위자, 번역, 에이블리즘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이동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고,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문영임, 2022; 윤수정, 2023).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동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는 이동이 여전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고, 저상버스 도입률은 수년째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박승원, 2018; 공마리아 외, 2022). 보도의 턱, 부적절한 경사로, 부족한 편의시설 등은 일상적인 이동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으로 존재한다(양정빈, 최윤영, 2022).

이러한 장벽들은 종종 비장애인 중심의 에이블리즘적 위상학(ableist topology)을 구현하는 인프라로 구축된다(Velho, 2021; Osman & Porkertová, 2023).¹⁾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여 보이지 않는 시설물들이 장애인에게는 이동을 가로막고 네트워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사회적 돌멩이’로 작동하는 것이다(Osman & Porkertová, 2023).²⁾ 이처럼 법과 현실, 선언과 인프라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괴리는, 이동권 문제를 단순히 법률 제정이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동권은 인간의 몸, 휠체어, 버스, 리프트, 법률, 정책, 예산, 인식, 공간 등 다양한 인간적·비인간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것’이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 같은 이질적 관계망이 서로의 특성을 규정하며 얽히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Latour, 2005: 1)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과 사물, 사회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허상을 지적하며 현실 세계가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인 하이브리드(hybrid)로 가득 차 있음을 역설한 부르노 라투르(Latour, 1993)의 통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동권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하이브리드의 전형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하

1) 위상학(topology)은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배치를 넘어, 공간·사물·신체·규범 등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과 그에 따른 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은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환경이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배제하거나 ‘결함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관계적 지형을 뜻한다(Osman & Porkertová, 2023).

2) Osman과 Porkertová(2023)는 비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문턱, 연석 등의 물리적 장벽을 ‘사회적 돌멩이’에 비유했다. 이는 특정 사회 구성원에게만 장애물로 작동하는 에이블리즘적 환경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한 분석적 지위에 놓고 이들의 관계 맺음과 상호작용, 즉 번역(translation) 과정을 추적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Latour, 2004; 최병두, 2015; 박은주, 2020).

더 나아가, 최근 장애학(Disability Studies)과 과학기술학(STS)의 논의는 ANT적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인프라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Velho, 2021), 장애인도 이러한 인프라에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천을 통해 네트워크에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신길역의 리프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선 행위자가 되었고, 장애인들의 지하철 투쟁은 도시의 인프라와 정치적 담론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ANT를 핵심 분석틀로 삼고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이라는 세 가지 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는 어떤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둘째, 이들 행위자는 ‘번역’ 과정을 통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위상학(topology)을 변형시키는가? 셋째, 이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과 갈등 지점,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권력 관계와 ‘정치적’ 역동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는 보다 실효성 있고 정의로운 이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이동권 : 권리, 현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필요성

이동권은 모든 인간이 사회의 물리적·정보적 환경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문영임, 2022; 윤수정, 2023). 특히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사회적 장벽

에 부딪혀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써 더욱 강조된다(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의 이동 제약은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기회 박탈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이유신, 김한성, 2019; 김득연, 박종균, 2020).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법적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다(윤수정, 2023). 그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문영임, 20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박승원, 2018; 공마리아 외, 2022). 보행 환경 역시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통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양정빈, 최윤영, 2022). 이는 이동권 보장이 단순히 법률 조항이나 시설의 양적 확충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법·제도, 기술, 인프라, 예산, 정책 집행,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네트워크’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들의 관계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 하이브리드 세계의 지도 그리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미셸 칼롱(Michel Callon),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존 로(John Law)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인간 행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관점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ANT의 핵심은 라투르(Latour, 1993)가 지적한 ‘근대적 협약’³⁾의 해체에 있다. 근대는 자연과 사회, 사물과 인간을 분리하는 ‘정화(Purification)’ 작업을 통해 발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3) 라투르가 말하는 ‘근대적 협약’은 한편으로는 자연과 사회, 사물과 인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정화(Purification)’ 작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끊임없이 뒤섞여 새로운 ‘하이브리드(Hybrid)’를 만들어 내는 ‘번역(Translation)’ 작업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해 온 근대성의 모순적 특징을 의미한다(Latour, 1993).

들을 끊임없이 섞어 ‘하이브리드(Hybrid)’를 만드는 ‘번역(Translation)’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ANT는 바로 이 숨겨진 번역 작업과 하이브리드에 주목하며, 인간과 비인간(사물, 기술, 텍스트, 자연 등)이 어떻게 동등한 행위자(Actor/Actant)로서 관계를 맺고 이 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상을 구성하는지를 추적하고 기술한다(Latour, 2005; 최병두, 2015; 박은주, 2020).

이를 위해 ANT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제시한다. 첫째,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며, 인간과 비인간을 동일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 ‘대칭성의 원칙’⁴⁾을 따른다(Latour, 2005; 최병두, 2015; 김정호, 강주희, 2022). 이동권 네트워크에서 휠체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동 능력을 부여하고, 때로는 고장 나거나 장벽에 부딪히며 이동을 방해하는 강력한 행위자이다. 휠체어 리프트(박승원, 2018)나 도로의 돌맹이(Osman & Porkertová, 2023) 역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흐름을 바꾸는 행위성을 지닌다.

둘째,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질적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들의 총체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과정 그 자체이다. ANT는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안정화되거나 혹은 해체되는지를 추적한다(Latour, 1993, 2004). 여기서 안정화란 ‘블랙박스화(black-boxing)’를 의미하는데, 이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복잡한 협상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더 이상 그 내부가 문제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단일하고 당연한 사실이나 기술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뜻한다.

셋째, ‘번역’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련의 협상 과정이다. 이는 문제제기(problematization)를 통해 특정 행위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행위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의무통과점(OPP)⁵⁾을 설정하는 과정, 설정된 문제에 다른 행위자들의 관심을 끄는(interressement) 과정, 이들을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역할을 부여하며 등록(enrolment)시키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동원(mobilization)하여 네트워크의 힘을 확장하는 단계로 설명된다(김상태, 김남조, 2018; 박은주, 김동미, 2022).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와 ‘정치적’

4) 대칭성의 원칙은 인간과 비인간이 존재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연구자가 인간의 의도나 사회 구조만을 특권적인 원인으로 미리 가정하지 않고, 비인간 행위자 역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동등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원칙을 의미한다(Latour, 2005: 76).

5) 의무통과점(OPP)은 번역의 첫 단계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설정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는 특정 주동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문제와 정체성을 정의한 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 정책 등을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해결책을 다른 모든 행위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으로 만들으로써,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Callon, 1986).

협상을 수반한다(Latour, 2004).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ANT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장애인, 활동가, 공무원 등)과 비인간(휠체어, 버스, 법률, 인프라 등)이 어떻게 서로를 번역하며 ‘접근 가능한 위상학’ 혹은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로 재해석될 수 있다(Osman & Porkertová, 2023). 또한 장애인들이 인프라와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를 변화시키는 과정(Velho, 2021)을 포착하는 데 ANT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ANT의 시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네트워크의 복잡한 역동성을 기술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현실 세계의 맥락 안에서 특정 현상이나 사건을 ‘어떻게(how)’ 그리고 ‘왜(why)’라는 질문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강점을 지닌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 방법을 핵심 연구 설계로 활용하였다(Yin, 2018).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동권 네트워크의 실제 작동 방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질적 사례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

1. 사례 선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단일한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거시적(사회 구조 및 갈등), 중시적(정책과 담론의 형성), 미시적(개인의 경험과 기술의 상호작용) 차원을 아우르는 다층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에 따라,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통해 각기 다른 층위와 맥락을 대표하는 세 가지 사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Yin, 2018).

첫 번째 사례는 2017년에 발생한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로, 이는 장애인의 이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기술적 실패, 정책적 무관심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거시

적 사례이다. 본 사례는 이동권 네트워크의 첨예한 충돌 지점을 보여주며, 당시의 언론 보도(박승원, 2018)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이다. 이 사례는 정책 결정자, 전문가, 시민사회 주체들이 참여한 공론의 장으로서, 이동권 담론이 형성되고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시적 사례이다. 분석은 해당 토론회 자료집(국회의원 김철민 외, 2019)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사례는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채수영, 안나연, 2012)이다. 이 사례는 보조기기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장애 당사자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동권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미시적 사례로,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이동권을 둘러싼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세 가지 사례에 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각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과 맥락 파악을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 주요 쟁점, 그리고 등장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자료(뉴스 기사, 토론회 자료집, 학술 논문)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정치적 배경과 맥락을 정리하고, 각 사례의 고유한 특성과 맥락적 조건을 서술하였다.

이후, ANT의 대칭성 원칙에 입각하여 사례별로 이동권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모든 인간 행위자(예: 장애인 당사자, 정책결정자, 언론, 시민단체 등)와 비인간 행위자(예: 휠체어 리프트, 보조기기, 법률 문서 등)를 식별하고 이들을 목록화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적 장치와 제도적 장치도 주체적으로 작동하는 행위자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식별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ANT의 핵심 개념인 ‘번역(translation)’의 네 가지 단계, 즉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관심끌기(interressement), 등록(enrolment), 동원(mobiliz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행위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설득 또는 저항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였다. 이와 함께,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이나 블랙박스의 형성 및 해체와 같은 ANT의 확장 개념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사례별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번역 구조를 시각적 또는

서술적 방식으로 ‘매핑(mapping)’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적 역학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사례를 비교·종합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가지는 공통적 특징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ANT 이론이 제공하는 해석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3.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라는 명확한 이론적 틀과 Yin(2018)이 제시하는 사례 연구의 절차를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하여 연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적 갈등(뉴스 기사), 정책 담론(토론회 자료집), 개인의 기술 경험(학술 논문)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단일 관점이 아닌 다각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데이터 삼각 측량(data triangulation)의 전략에 기반한다. 셋째, 분석 과정과 결과를 최대한 상세하고 투명하게 기술하여 독자가 연구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신뢰성(reliability)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선정한 세 가지 사례인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각 사례 분석은 먼저 사례의 내용을 요약하는 ‘사례 개요’를 제시하고, 이어 ANT의 핵심 개념인 행위자, 번역,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ANT 관점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 ‘살인기계’와 죽음의 네트워크

1) 사례개요

2017년 10월 20일, 베트남 상이군인이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팔이 마비된 한경덕

씨는 신길역 1·5호선 환승 계단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오른팔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는 버튼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던 중, 충분치 않은 공간과 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98일 만인 2018년 1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유가족과 장추련은 2018년 3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호출 버튼의 위험한 위치(사고 이후에야 변경됨)와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자체의 근본적인 안전 결함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공사는 법적 규정을 모두 지켰으며 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01년 오이도역 참사 이후 잠잠해졌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다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상복 시위, 지하철 연착 투쟁 등을 벌이며 서울시의 사과와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2018년 9월, 공사 사장이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미비와 소송 미취하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극적이게도, 한경덕 씨 1주기 추모제가 열리던 날에도 신길역 리프트는 또다시 공중에서 멈추는 사고를 일으켰다(박승원, 2018).

2) ANT 관점 분석

신길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네트워크가 얼마나 취약하며,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얹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고, 이후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사례는 ANT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행위자 식별, 번역 과정의 추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 사건에 개입된 행위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인간 행위자로는 피해자 고 한경덕 씨와 그 유가족,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장애인 단체(장추련) 활동가, 변호사 및 판사, 당시 서울시장, 지하철 이용 시민, 언론 보도 기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과 더불어, 전동휠체어와 마비된 신체 일부, 신길역 계단과 협소한 공간, 문제의 휠체어 리프트와 호출 버튼, 관련 법률과 지침, 손해배상 소송 절차,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상복과 관, 지하철 시스템 자체, 대안으로 제시된 엘리베이터,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선언, 언론 보도 기사 등은 모두 비인간 행위자로 기능하며 네트워크 형성과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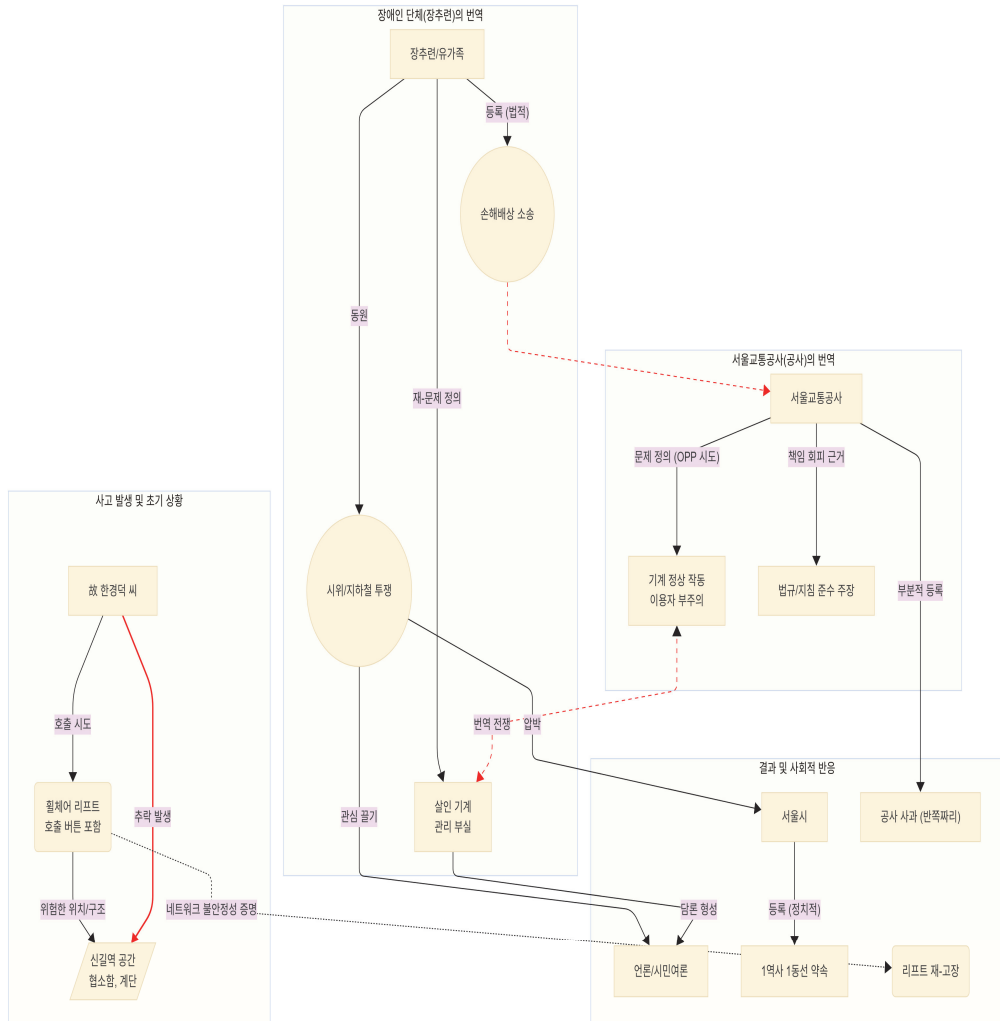
이 행위자들이 ‘번역’ 과정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충돌했는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의 번역 과정 분석

번역단계	사례내용 분석	
문제제기	서울교통공사	· 사고 원인을 ‘이용자 부주의’와 ‘기기의 정상 작동’으로 정의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의무통과점(OPP)’으로 설정하려 시도함
	장애인 단체	· 사고를 ‘위험한 리프트’와 ‘관리 부실’의 결과로 재규정하고, 휠체어 리프트를 ‘살인 기계’라는 강력한 은유로 번역하여 공공 안전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함
관심끌기	서울교통공사	· ‘법적 규정 준수’를 내세워 법원과 여론의 관심을 책임론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
	장애인 단체	· 상복 시위, 지하철 연착 투쟁, 기자회견 등의 활동으로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이끌고, ‘살인 기계’ 팻말로 휠체어 리프트를 공사 책임의 상징으로 만들
등록	장애인 단체	· 법원을 통해 공사의 법적 책임을, 언론을 통해 여론 형성 시도, 서울시에 ‘1역사 1동선’ 약속을 등록하여 책임을 물음
	서울교통공사	· 법적 규정을 내세워 방어함. 행위자들은 서로를 피해자, 책임자, 투사 등으로 규정했으나, ‘반쪽짜리 사과’에서 보이듯 완전한 등록에는 실패함
동원	장애인 단체	· 지하철 투쟁으로 당사자와 시민의 참여를 동원했으며, 언론은 여론 형성의 중심 매개체로 작용함
	불완전한 동원	· 공사의 사과를 이끌어 냈으나, 리프트가 계속 운동되고 문제가 미해결 되면서 1주기 추모제 당일 리프트가 다시 멈춘 사고 등은 동원이 완결되지 못하고 네트워크가 여전히 불안정함을 보여줌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사례의 네트워크는 ‘취약성’과 ‘갈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휠체어 리프트와 호출 버튼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기술을 넘어선 사회적 행위자의 위상을 지닌다. 또한 이 사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번역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며, 이에 대응한 투쟁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신길역 리프트 사고는 이동권 보장이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이나 기술적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얽힌 복잡한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상의 분석을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 사례의 행위자-네트워크 맵



2.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 정책·담론 형성네트워크

1) 사례개요

2019년 12월 20일, 국회의원 김철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하고, 특히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표준 조례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 자립생활센터 관계자, 공공교통 전문가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영 실태, 지역별 운영 격차, 이용 대상자 범위, 광역 이동 지원 시스템 부재, 이용 요금, 운전원 처우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표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국회의원 김철민 외, 2019).

2) ANT 관점 분석

이 토론회는 이동권 네트워크가 정책적이고 담론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협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틀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공론장은 특정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도적인 ‘번역’의 장이 된다.

이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개입하며 상호작용한다. 인간 행위자로는 국회의원 김철민과 같은 정치적 후원자, 전장연 및 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같은 권리 주장자, 그리고 공공교통 전문가와 같은 지식 제공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동권을 ‘생존권’과 ‘일상 경험’의 문제로 제기하는 당사자의 논리와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우선하는 정책·행정의 논리를 충돌시키며 협상을 시도한다.

여기에 「교통약자법」이라는 법률,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기술-서비스 복합체, 휠체어와 같은 이용 기준 장치, 표준 조례안, 토론회 자료집, 통계 자료, 국회의원회관이라는 공간, 예산이라는 정책 자원, 지역 간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 등이 비인간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통계나 사례 자료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근거’로 기능하고, 기존의 「교통약자법」은 ‘논의의 대상’이 되며, 새롭게 제시된 ‘표준 조례안’은 모든 행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적인 ‘의무통과점(OPP)’으로 제시된다.

이 행위자들이 ‘번역’을 통해 어떻게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했는지는 아래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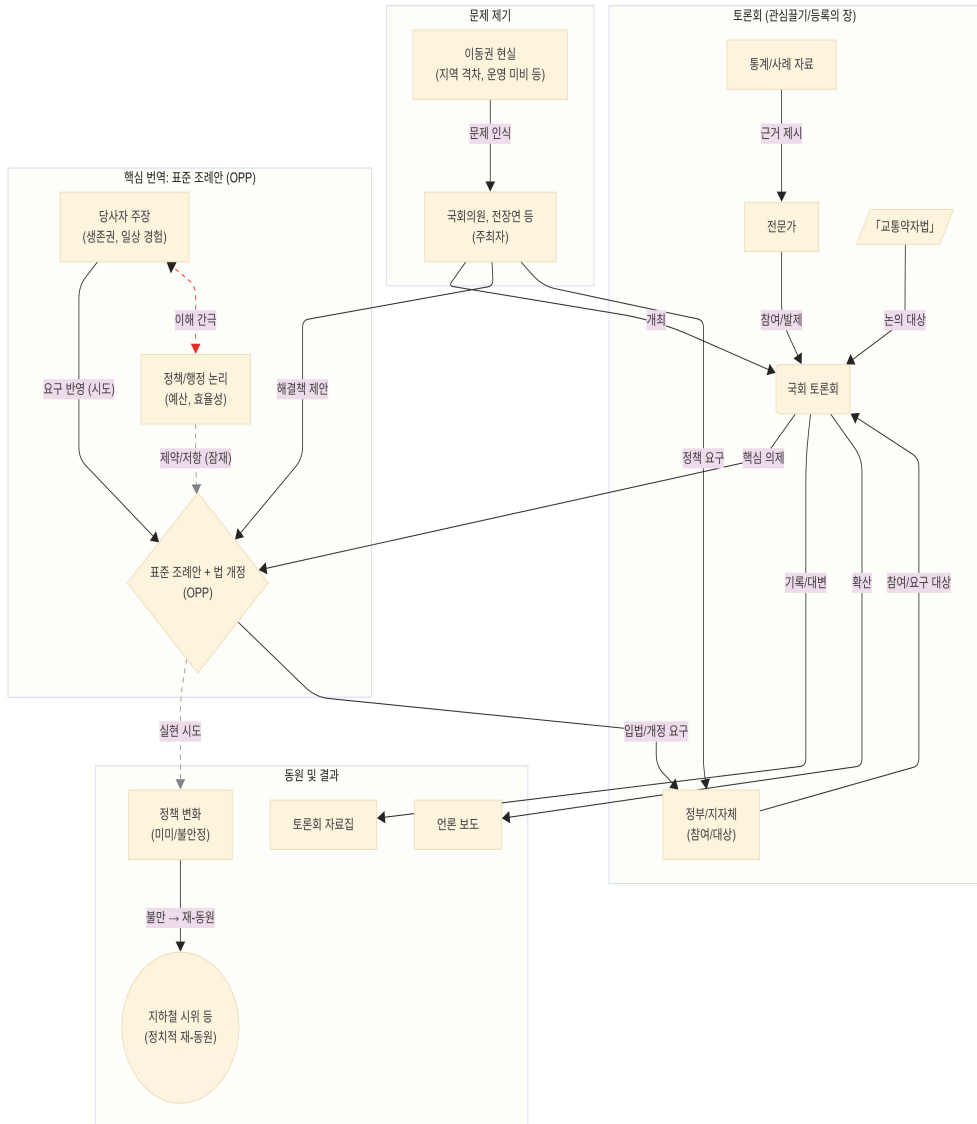
<표 2>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의 번역 과정 분석

번역단계	사례내용 분석
문제제기	· 주최측(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등)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지역 불균형, 규정 모호성 등)을 이동권 보장의 핵심 장애물로 규정함 · 의무통과점(OPP)설정 : ‘실질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 조례안 제정’과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통과점으로 제안함
관심끌기	· 통계자료, 실제 불편 사례, 법률 조항 분석 등을 통해 정책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킴 · ‘표준조례안’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집중시킴
등록	· 토론회라는 장을 통해 각 참여자에게 역할을 부여함(장애인 단체=요구자, 전문가=조언자, 국회의원=정치적 지원자, 정부=책임주체) · 비인간 행위자인 ‘교통약자법’은 개선되어야 할 규범으로, ‘표준 조례안’은 바람직한 해결안으로 등록시키려 시도함
동원	· 토론회 개최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원하려는 전략으로 기능함 · 토론회 자료집과 언론 보도를 ‘대변인’으로 삼아, 논의된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제도 변화를 위한 지지 기반을 동원하고자 함 · 정책 결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음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는 본질적으로 담론적이며 정치적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행위자들은 물리적 힘보다 담론, 법률 문서, 통계, 정책언어, 정치적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중심에는 비인간 행위자인 법률, 조례안, 공간 등이 존재한다. 특히 ‘표준 조례안’은 토론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작동하며, 행위자 간의 해석과 협상의 장을 매개한다.

이 사례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블랙박스로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과 번역, 설득과 저항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네트워크 구성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이상의 분석을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사례의 행위자-네트워크 맵



3. 척수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 : 인간-기술 하이브리드

1) 사례개요

채수영과 안나연(2012)의 연구는 보조공학기기, 특히 휠체어 사용이 척수손상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이 연구는 척수손상 장애인 5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PIADS(Psychosocial Impact of Assistive Devices Scale)를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 전후의 능력, 적응성,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휠체어 사용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수동 휠체어 사용자보다 전동 휠체어 사용자에게서 심리사회적 영향 점수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사용은 척수장애인의 ‘능력’과 ‘적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보조공학기기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심리사회적 상태와 삶의 질에 깊숙이 관여함을 시사한다(채수영, 안나연, 2012).

2) ANT 관점 분석

척수손상 장애인의 휠체어 사용 경험은 인간과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행위 주체, 즉 ‘하이브리드(hybrid)’를 형성하고, 이 하이브리드가 주변 환경 및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동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선 거시적, 중시적 차원의 분석과 달리, 이 미시적 사례는 이동권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기술과 결합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또 좌절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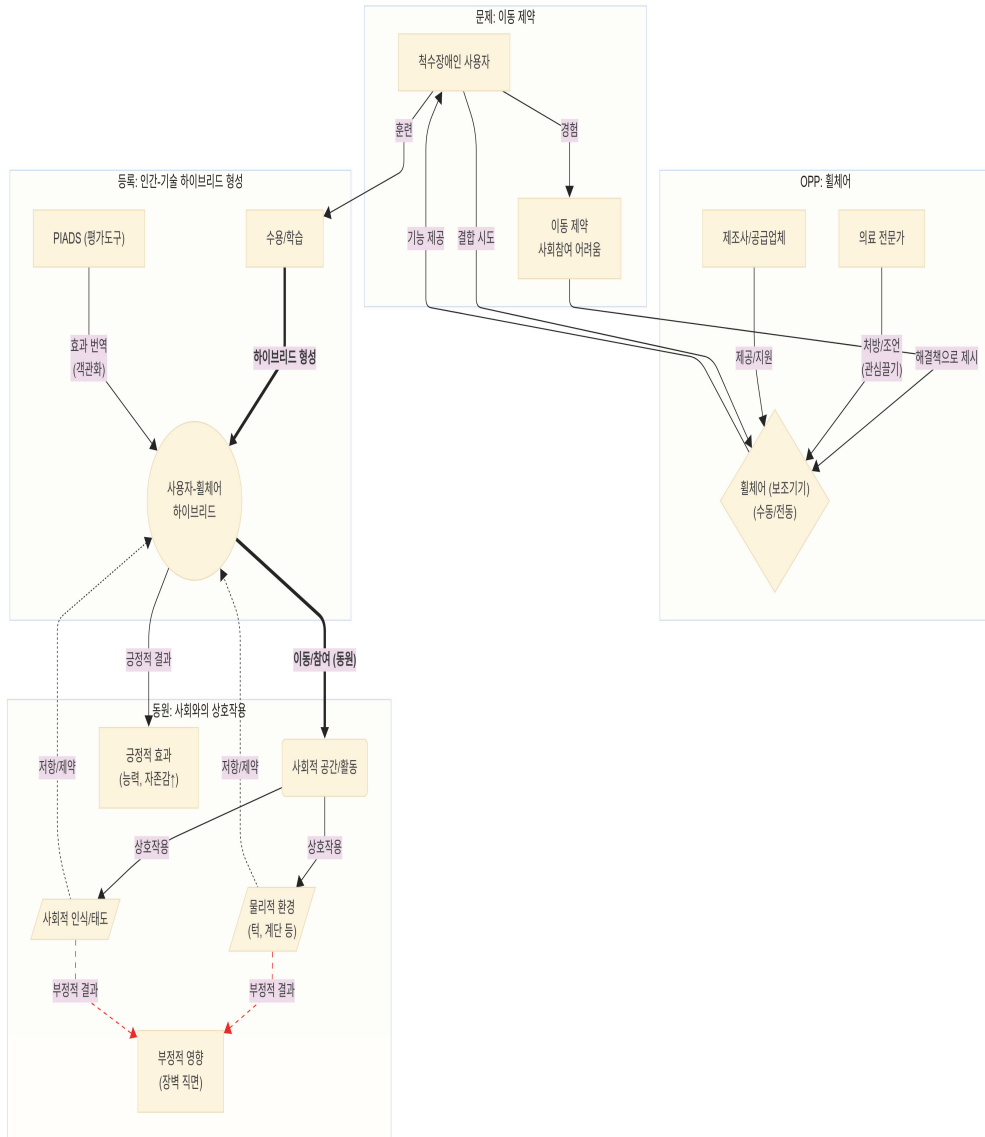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척수장애인 사용자와 그들의 신체(손상된 척수, 남아있는 기능), 그리고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라는 핵심 비인간 행위자가 있다. 이들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위성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를 형성한다. 이 ‘인간-기술 하이브리드’의 형성은 이동권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능동적으로 ‘수행’되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는 휠체어를 처방하고 훈련시키는 의료 전문가, 휠체어를 제조·공급하는 기업, 휠체어 사용 효과를 평가하는 PIADS와 같은 도구, 휠체어가 통과해야 할 집과 거리, 대중교통 등 물리적 환경,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사용자의 자아존중감·우울감 등 심리사회적 요인도 주요 행위자로 포함된다. 이 다양한 행위자들은 하이브리드 주체의 이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며 그 행위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 행위자들이 ‘번역’을 통해 어떻게 인간-기술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척수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 경험 번역 과정 분석

번역단계	사례내용 분석
문제제기	· 출발점 : 척수손상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사회 참여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됨 · 의무통과점(OPP) 설정 :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 이동’과 ‘사회 복귀’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휠체어’가 의무통과점으로 설정됨
관심끌기	· 휠체어의 다양한 기능(전동 기능, 맞춤 설정 등)이 더 나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사용자의 관심을 끄 · 의료 전문가는 휠체어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며 사용자의 관심을 휠체어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함
등록	· 사용자는 휠체어를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작법을 익히며, ‘휠체어 사용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네트워크에 등록됨 · PIADS와 같은 평가 도구는 휠체어 사용의 긍정적 효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번역하여, 이 관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킴
동원	· 성공적으로 번역된 ‘사용자-휠체어 하이브리드’는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사회 공간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동원) · 그러나 이 동원 과정은 물리적 환경(턱, 계단)이나 사회적 편견과 같은 다른 행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함

이와 같은 분석은 휠체어 사용 경험을 인간과 기술의 결합체인 하이브리드로 이해할 때, 이동권 네트워크가 단순히 기계 장치의 문제를 넘어서 심리사회적·문화적 요소와 밀접하게 얽힌 사회기술적 시스템임을 보여준다. 휠체어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정체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형성하는 존재이며, 그 행위성은 주변 행위자들에 따라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된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이 하이브리드의 이동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매개하고 제약하는지를 드러내는 점에서, 본 사례는 Osman과 Porkertová(2023)가 제시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ableist topology)’의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이상의 분석을 시각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척수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례의 행위자-네트워크 맵



4. 종합분석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의 역동성

앞서 분석한 세 가지 사례는 각각 거시적(사회적 갈등), 중시적(정책/담론 형성), 미시적(개인/기술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별 사례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갖는 보다 일반적인 특징과 그 역동성을 ANT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동권 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질적이고 불안정한 결합체이다. 세 사례 모두에서 법률, 정책, 예산과 같은 제도적 행위자, 휠체어, 리프트, 저상버스, 보조 기기와 같은 기술적 행위자, 그리고 도로, 건물, 계단과 같은 물리적 환경 행위자들이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정책 입안자, 전문가 등 인간 행위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신길역 사례에서 ‘휠체어 리프트’와 ‘호출 버튼’은 단순한 사물을 넘어 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행위자로 부상했으며, 이동권 토론회 사례에서는 ‘교통약자법’과 ‘표준 조례안’이라는 텍스트적 행위자가 논의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척수장애인 사례에서는 ‘휠체어’가 사용자의 신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과 행위성을 지닌 ‘인간-기술 하이브리드’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코 고정되거나 안정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기존 행위자의 이탈,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째,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형은 끊임없는 ‘번역’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 사례 모두에서 특정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하고 다른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신길역 사고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서울교통공사와 장애인 단체 간에 극명한 문제제기 경쟁이 벌어졌으며, ‘휠체어 리프트’는 중립적인 기계에서 ‘살인 기계’로 번역되었다. 이동권 토론회는 그 자체가 이동권 문제를 특정 방식으로 정의하고(문제제기), 관련 행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관심끌기, 등록),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려는 거대한 번역의 장이었다. 척수장애인 사례에서는 휠체어가 사용자의 ‘이동 제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통과점’으로 제시되고, 사용자는 휠체어를 통해 새로운 능력과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휠체어,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번역해 나갔다. 이러한 번역 과정은 결코 일방적이거나 순탄하지 않으며, 저항, 협상, 타협,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동권 네트워크는 ‘에이블리즘적 위상학’과 이에 저항하는 힘겨루기의 장이다. Osman과 Porkertová(202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종종 비장애인 중심의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 수많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신길역의 위험한 리프트와 호출 버튼, 토론회에서 지적된 접근

불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척수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물리적 환경의 제약들은 모두 이러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의 구체적인 발현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그들의 연대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존의 위상학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소송, 정책 제안, 기술의 창의적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새로운 ‘접근 가능한 위상학’을 구축하려 노력한다. 이동권 투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힘겨루기의 과정이며, 네트워크의 위상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과 협상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비인간 행위자의 ‘대변’과 ‘등록’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동권 네트워크에서 법률, 정책, 기술, 인프라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변하며 네트워크에 등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신길역 사고에서 ‘법적 규정’은 공사의 면책 논리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 장애인 단체에게는 개정되어야 할 불완전한 행위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표준 조례안’은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각 지자체의 조례로 성공적으로 등록되고 동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척수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성공적으로 등록되어 신체의 일부처럼 기능할 때 강력한 이동성을 제공하지만, 제대로 맞지 않거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부재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제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인간 행위자들을 인간 행위자들의 의도와 필요에 맞게 성공적으로 번역하고 등록시키는 과정이 이동권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세 가지 사례 분석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 네트워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번역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에이블리즘적 구조에 맞서 새로운 관계 맺음과 위상학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핵심적인 분석틀로 삼고,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세 가지 질적 사례(신길역 리프트 사고, 장애인 이동권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경험)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구성체임이 확인되었다. 신길역 사례에서는 리프트, 호출 버튼, 법규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책임 공방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동권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법, 표준 조례안, 통계 자료 등이 논의를 이끌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또한, 척수장애인 사례에서는 휠체어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신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과 행위성을 지닌 ‘인간-기술 하이브리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동권 문제가 단순히 인간 중심의 권리나 정책의 문제를 넘어, 라투르(Latour, 1993)가 지적인 것처럼 기술, 사물, 법, 공간 등 다양한 비인간 요소들이 인간과 함께 현실을 구성하고 변형시키는 ‘하이브리드’적 현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존의 이동권 연구들이 주로 법·제도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허창덕, 신주영, 2011; 문영임, 2022)과 달리, 본 연구는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이들이 인간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냄으로써 이동권 문제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했다.

둘째, 이동권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형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끊임없는 ‘번역’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권력 관계와 정치적 협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신길역 사고에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각 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문제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번역 전쟁이었다. ‘휠체어 리프트’는 공사에 의해 ‘정상 작동 기계’로 번역되려 했으나, 장애인 단체에 의해 ‘살인 기계’라는 강력한 상징으로 재번역되며 네트워크의 구성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다. 토론회는 그 자체가 이동권 문제를 특정 방식으로 문제제기하고(예: 표준 조례안의 필요성),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관심 끌기, 등록) 정책 변화를 동원하려는 거대한 번역의 장이었다. 척수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이동 제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통과점으로 제시되었고, 사용자와 휠체어는 서로를 번역하며 새로운 이동 방식과 삶의 가능성을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번역 과정은 라투르(Latour, 2004)가 강조한 것처럼 결코 중립적이거나 순탄하지 않으며,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규범, 그리고 각 행위자들의 전략과 자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정치적 과정임을 세 사례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동권 네트워크는 비장애인 중심의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에 맞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연대 세력이 새로운 ‘접근 가능한 위상학’을 구성하려는 지속적인 힘겨루기의 장이었다. Osman과 Porkertová(2023)가 지적인 ‘사회적 돌멩이’처럼, 우리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환경은 종종 비장애인의 몸과 경험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에게는 수많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신길역의 위험한 리프트, 토론회에서 지적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 척수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접근성의 제약들은 모두 이러한 에이블리즘적 위상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그들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구조에 수동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시위, 소송,

정책 제안, 기술의 창의적 활용, 그리고 일상에서의 미시적 저항을 통해 기존의 위상학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Velho, 2021).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쟁취되고 확장되는 ‘구성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ANT가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함을 보여준다. 특히 인간과 비인간의 대칭적 접근, 번역 과정에 대한 추적, 네트워크의 역동성에 대한 강조는 기존의 구조 중심적 혹은 개인 중심적 접근 방식이 간과했던 이동권 문제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ANT를 적용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동권 문제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주로 문헌 자료에 의존하여 사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 셋째, ANT의 분석 과정은 연구자의 해석에 크게 의존하므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사례를 분석하더라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이동권 관련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다양한 맥락과 유형의 이동권 사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정신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의 이동 경험, 특정 교통수단(예: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둘러싼 네트워크 분석 등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ANT를 활용한 연구에서 질적 사례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계량적 연구나,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결합한 혼합 연구 설계를 통해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동권 네트워크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협상, 그리고 권력관계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동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배제되는지를 ANT의 관점에서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시혜나 편의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시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현상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역동적인 네트워크의 산물임을 밝혔다. 신길역 리프트 사고는 기술과 제도의 실패가 어떻게 비극을 낳고 사회적 투쟁을 촉발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동권 토론

회는 정책과 담론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번역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 공간임을 드러냈다. 또한, 척수장애인의 휠체어 사용 경험은 기술과 인간이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지만 동시에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재구성됨을 보여주었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단순히 법을 만들거나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그것은 이동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정책가, 시민 등)과 비인간 행위자들(법률, 정책, 예산, 기술, 인프라, 사회적 인식 등)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이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와 기술 환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기술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설계와 제도 개편에 있어 인간-비인간 행위자 간의 관계 재구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공마리아, 문영임, 김지혜. (202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수단 정책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8(3), 59-78.
- 국회의원 김철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곽은주, 김동미. (2022).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을 위한 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0(3), 5-31.
- 김득연, 박종균. (2020). 중도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이동성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0, 143-168.
- 김상태, 김남조. (2018).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관광분야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과정 분석: 에어비엔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2(3), 163-183.
- 김정효, 강주희. (2022).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브뤼노 라투르의 '대칭성'과 '번역'의 의미를 바탕으로. *조형교육*, 84, 75-95.
- 문영임. (2022).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 분석과 향후 과제: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3(2), 213-236.
- 박승원. (2018. 3. 15).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0>)
- 박승원. (2018. 6. 1). 고 한경덕 씨 죽음으로 내몬 휠체어리프트 타며 “살인기계 리프트 철거하라!”.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9>)
- 박승원. (2018. 10. 19). ‘덜컹’ 신길역 참사 1주기 추모제날에도 멈춘 휠체어 리프트.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6>)
- 박은주. (2020). 기계도 행위할 수 있는가?: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2(4), 1-26.
- 양정빈, 최윤영. (2022).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 *사례관리연구*, 13(1), 219-239.
- 윤수정. (2023).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24(2), 27-56.
- 이유신, 김한성. (2019).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9(1), 136-165.
- 채수영, 안나연. (2012). 척수손상 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영향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2), 179-196.
- 최병두. (2015).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사회*, 25(3), 126-174.
- 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1-25.

- Callon, M.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In J.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pp. 196-233). Routledge & Kegan Paul.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 Port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4). *Politics of nature: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 (C. Port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Osman, R., & Porkertová, H. (2023). The social stone: a story of transformation from ableist to accessible topology. *Social & Cultural Geography*, 24(9), 1598-1615.
- Velho, R. (2021). They're changing the network just by being there: Reconsidering infrastructures through the frame of disability studies.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41(2).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Network Analysis of Mo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

JaeWook Lee*

This study explores mo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merely as an issue of institutional policy or physical access, but as a sociotechnical network involving human and non-human actors. Applying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ANT) as its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three cases: the Singil Station lift accident, a national policy forum on disability mobility, and the use of assistive technologies by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 analysis shows that mobility networks are complex and fluid, shaped through "translation" processes that define meaning, mediate interaction, and reflect power relations and political struggle. These networks often embed ableist assumptions in technology, design, and policy. Yet they also become arenas of resistance, where disabled actors challenge and reshape systems through protests, advocacy, and creative action. By examining diverse actor interactions,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lens that moves beyond institution-focused approaches to understanding mobility rights.

Keywords : Mobility rights, Actor-Network Theory(ANT), non-human actors, translation, ableism

* Ph. D. Student, Dept. of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



논문 투고 : 2025.04.15.

논문 심사 : 2025.05.28.

게재 확정 : 2025.06.16.